

법 어

4월 두륜산의 초목은 푸르고 꽃들은 형형색색으로 수려합니다. 이렇게 산색이 좋고 물소리 분명하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청정법신비로자나불의 도량입니다. 오늘 두륜산하 청정도량 대흥사에서 청허당 휴정 대선사의 탄신 493주년을 맞아 대흥사 사부대중과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대선사의 덕화를 추앙하고 계승하고자 모였습니다. 참으로 성스럽고 뜻 깊은 법석입니다.

오늘 법석에 참여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청허당 휴정 대선사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우리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모든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발심하고, 수하고, 깨달음을 성취하고, 전법하고 회향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역사 앞에 나투셨습니다. 청허 대선사는 이러한 부처님의 혜명을 상속하였으며, 한국불교의 중흥조이십니다. 그러므로 청허 대선사의 의발이 면면부절 전해지고 있는 대흥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와 종통이 귀의처입니다. 오늘 청허 대선사의 탄신일을 맞아 우리 사부대중도 이 땅에 불조의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길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는 늘 절망과 희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절망의 길은 상극과 투쟁의 역사입니다. 희망의 길은 상생과 평화의 역사입니다. 절망의 세계가 펼쳐지는 원인은 무지와 욕망의 묶여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희망의 세계는 모든 생명을 지고한 가치로 인식하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할 때 열리는 길입니다. 절망과 희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모든 생명이 상생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통찰하고 선택하는 삶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삶이 자비보살행입니다. 수행이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이 길은 제불보살의 길이요, 역대 조사의 길이며, 바로 오늘 우리의 길입니다.

청허 대선사의 탄신 기념 법석에 참여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제불보살님과 역대조사의 길을 가고자 발심과 원력을 세운 우리 모두 바로 마음에 새겨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하다. 모든 중생이 여래의 지혜와 덕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며, 모든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계종 종문의 중흥조이신 청허 대선사께서는 선가귀감 첫 머리에서 모든 생명을, "이름 붙일 수 없고 모양도 그릴 수 없는 본디 밝고 밝은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절망과 희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청허 대선사께서 선언하신 생명의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생명의 절대 가치를 구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부처로 사는 일'입니다. 내가 존엄한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부처로 살아가는 길이 수행이고, 우리의 삶터가 바로 정토세계입니다.

모든 생명이 존엄한 부처님이니 내 이웃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공경하고 마음 나누는 일이 바로 보살행이고, 우리 모두가 관음보살이요 보현보살이 되어 보살행을 하는 자리 그대로가 화엄세계입니다. 念念菩提心, 處處安樂國! 생각마다 부처의 마음이면 사람 사는 그 자리가 안락의 극락정토라 하였으니 마음에 새기고 거듭 새겨야 할 지혜의 말씀이요, 행하고 행해야 할 자비의 구현입니다. 존귀한 존재가 존귀하게 살아가고, 존귀하게 대접 받지 못하는 존재를 존귀하게 대접하는 일이 바로 지혜와 자비의 실천이며 부처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와 가치가 존재하고 있으며 서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숲은 수많은 나무로 이루어졌으며, 꽃밭은形形色색의 무무한 꽃들로 장엄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의 나무와 꽃은 절대적으로 존귀하며, 그것들 하나 하나가 모여 바로 숲을 이루고 꽃밭을 이루고 있다는 연기의 이치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모든 생명은 그대로가 존귀한 부처님이며, 모든 생명은 서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고마운 존재임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차이를 넘어서 보편적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비움과 나눔으로 행복한 세계를 열어가는 동행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발심과 원력을 세우기 바랍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뜻 깊고 환희로운 날입니다.

저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무원장으로서 조계종문의 대선사요, 구국의 성사이신 청허당 휴정 대선사의 의발과 유품을 모시고 그 종지를 선양하고 있는 대흥사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고도 큼니다. 저는 대흥사의 회주 보선 스님의 지도력과 주지 범각 스님을 열정으로 반드시 한국불교의 중흥이 이 도량에서 개화만발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허 대선사의 법력과 유지가 깃든 이 대흥사가 호국의 산실이요, 국민과 국가의 행복과 번영을 선양하는 구국의 산실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국의 대성사이신 청허 대선사를 선양하기 위해 현재 대흥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남 표충사 춘추제향'의 국가적 복원과 계승에 종단적인 차원의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기억의 복원과 전승으로 구현되고 창조됩니다. 따라서 '해남 표충사 춘추제향'이 국가적 차원으로 복원하는 일에 대흥사 사부대중과 해남군, 전라남도과 중앙정부가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오늘 청허 대선의 493 주년 탄신 기념 법석에 동참한 인연으로 모든 이웃들이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고 세상에는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